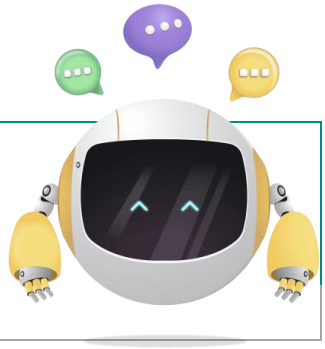
Tech&Stock Weekly

2026.01.23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다보스 포럼에서 확인된 AI 산업의 방향성

인튜이티브 서지컬(ISRG.US): 견조한 4분기 실적과 통상적인 보수적 가이던스

- 4분기 주요 실적지표가 기대치 상회. 2026년 수술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으나 ISRG가 지난 몇 년간 첫 연간지표 발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연간 지표는 첫 가이던스 대비 크게 아웃퍼폼 한 것을 고려하면 기존 패턴을 따른 것으로 보임
- 핵심 지표인 다빈치 로봇 수술 건수와 신규 설치 모두 기대치 상회. 수술 성장률 18%로 예상치 17% 상회, 다빈치 수술은 17%.
- 다빈치 시스템 신규 설치는 532대로 컨센 510대 여유 있게 상회, 다빈치5 신규 설치는 303대 설치되며 시장 예상치 271대 상회.
- 연간 기준 총 설치대수는 1,721대 (+13%), 다빈치5는 870대
- 매출액 28.7억 달러(+19% yoy), 시장 전망치 6% 상회, 조정 EPS 2.53 달러로 컨센 12% 상회
- 조정 OPM은 37%로 관세 영향은 약 95bps.
- 2026 수술 성장률 가이던스는 13~15%로 컨센 15% 하회. 향후 분기에 상향조정 될 것으로 보임
- 2026년 조정 GPM 가이던스는 67~68%. 관세영향은 1.2ppt 정도로 예상. 관세 외에 마진에 영향을 줄 요인은 마진이 낮은 신제품의 빠른 성장, 최근 시설 확장에 따른 감가상각 증가, 다빈치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중 증가 등
- 2026년 심장병 수술이 다빈치5를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서 성장 잠재력 높음. 2025년 전 세계적으로 Si 및 Xi 시스템에서 약 1.7만 건의 Cardiac 수술이 수행됨. 다빈치5가 승인된 지역(미국, 한국 등) 기준으로 로봇 수술 적합성을 분석했을 때, 잠재적 기회는 연간 약 16만 건 규모로 보고 있음

  ASC(외래 수술 센터) 확장 전략은 낮은 중증도의 대량 수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형 병원 입장에서의 경제적 요인에 부합하기 때문에 긍정적 영향 클 것

넷플릭스(NFLX.US): FY26 1분기 리뷰

- 4Q25 매출액 121억 달러(+18%)은 시장 예상치 부합. 영업이익 30억 달러(+30%), EPS 0.56달러(+30%)로 시장 예상치 29억 달러, 0.55 달러를 상회. 가입자는 3.2억 명을 돌파
- 지역별로도 UCAN 18%, EMEA 15%, LATAM 20%, APAC 19%의 고른 성장을 기록
- 2026년 매출 가이던스 507~517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나, 영업이익률(31.5%)이 시장 예상치 33% 하회. 1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22억으로 시장 예상치 부합하나, 영업이익과 EPS는 인수 비용 영향 등으로 39억, 0.76 달러를 제시하며 시장 예상치 42억, 0.81 달러를 하회
- 워너브라더스 인수가 주당 27.75달러 전액 현금 거래로 변경됨에 따라 자사주 매입 일시 중단 및 브릿지론 기존 320억에서 422억 달러로 증액 등 재무 부담이 부각
- 워너브라더스 인수에 따른 이익 훼손과 자사주 매입 중단, 재무 부담 가중에 대해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하락세

  그럼에도 본업은 견고함. 시청 시간은 2025 년 하반기 기준 전년 대비 2% 증가했으며, 브랜드 오리지널 콘텐츠 시청 시간은 9% 증가. 광고 매출도 2025년 2.5배 이상 성장하며 15억 달러를 돌파. 2026년에는 2배 이상 성장을 목표. 핵심 체력이 강력하여 인수 불확실성 해소 시 주가 회복이 기대됨

AI/플랫폼

<u>엔비디아(NVDA.US): 젠슨 황, 로보틱스 기반의 유럽 산업 부흥과 AI의 생산성 도구로서의 가치 강조</u>

- 젠슨황 CEO는 다보스 포럼에 참여하여, 유럽이 보유한 강력한 제조 및 산업적 뿌리가 로보틱스 기술과 결합할 때 거대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인공지능이 유럽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핵심 동력임을 시사

<u>마이크로소프트(MSFT.US): 사티아 나델라, AI 패권의 결정타로 에너지 인프라와 토큰 최적화 역량 지목</u>

- 나델라 CEO는 AI 경쟁의 핵심 변수를 토큰(token) 비용으로 정의하며, 토큰의 원가를 좌우하는 전력, 데이터센터 용량,

실리콘(반도체) 같은 공급 측 제약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가를 것이라고 강조

알파벳(GOOGL.US): 데미스 허사비스, '미중 AI 기술 격차 6개월'

-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하사비스는 다보스 인터뷰에서 중국 AI 기업들이 프런티어 모델을 빠르게 추격하는 역량은 커지고 있지만, 아직 프런티어를 넘어서는 혁신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전반적으로 서방의 프런티어 연구소 대비 약 6개월 정도 뒤처져 있다고 평가

메타(META.US): 스레드, 모바일 DAU에서 X를 추월하며 광고 플랫폼으로 전환 가속

- 시밀러웹 기준으로 스레드는 2026년 1월 7일 기준 iOS·안드로이드 일간 활성 이용자(DAU) 1억4,150만 명으로 X(1억2,500만 명)를 앞섬. 다만 웹에서는 스레드 약 850만, X 약 1억4,540만으로 차이가 여전함

오픈AI(비상장): 자금 조달과 인프라 확장 및 수익화 지속

- 샘 올트먼 CEO는 중동의 주요 국부펀드·대형 투자자들을 만나 오픈AI의 신규 투자 라운드 자금 유치를 타진하고 있으며, 라운드 규모는 최소 500억달러 이상, 기업가치는 약 7500억~8300억달러 수준 예상

앤스로픽(비상장): 자금 조달 순조로우나, 25년 GPM은 기존 전망치 대비 하락

- 세쿼이아 캐피털은 앤스로픽의 신규 자금조달 라운드에 참여할 계획이며, 이 라운드는 최소 250억달러 이상을 목표로 하고 기업가치는 3,500억달러 수준으로 예상. 세쿼이아는 기존에 OpenAI·xAI 등 경쟁 구도에 있는 AI 기업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앤스로픽까지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

우주/로봇

테슬라(TSLA.US): Dojo3를 '우주 기반 AI 컴퓨팅'으로 재가동

- 일론 머스크 CEO는 테슬라가 한때 중단했던 3세대 AI 슈퍼컴퓨터/칩 프로젝트인 Dojo3 개발을 다시 추진하되, 지상(자율주행 학습) 중심이 아니라 우주 기반 AI 컴퓨팅 용도로 포지셔닝한다고 밝힘

블루오리진(비상장): '테라웨이브'로 위성 인터넷 경쟁에 참전

- 블루오리진은 데이터센터·정부·기업 고객을 겨냥한 위성통신 서비스 '테라웨이브(TeraWave)'를 공개하며, 2027년 4분기부터 위성 배치를 시작해 5,408기 규모의 다중 궤도(LEO·MEO)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로켓랩(RKLB.US): 뉴트론 1단 탱크 시험 과정 중 파열 발생

- 뉴트론(Neutron) 로켓 개발 과정에서 1단 탱크의 자격 시험(수압·내압을 거는 hydrostatic pressure trial) 도중 파열(rupture)이 발생했다고 공지. 로켓랩은 자격 시험 단계에서 구조물을 의도적으로 한계까지 가압해 안전 여유(margin)를 검증하는 과정이므로 이런 실패는 드물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시험 구조물이나 시설에 중대한 손상은 없었다고 밝힘

전력기기/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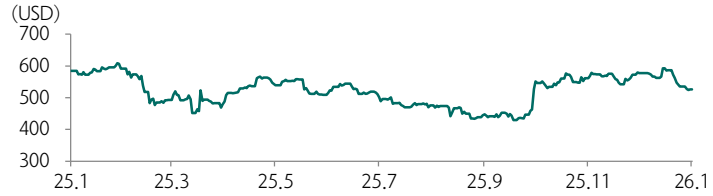
블룸에너지 [2026 Data Center Power Report]

- 유틸리티 응답자들은 현재 전력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하이퍼스케일러와 코로케이션 사업자들의 예상 대비 1.5~2년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대답
- 지난 6개월동안 2030년까지 전적으로 온사이트 전원으로 구동되는 캠퍼스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는 하이퍼스케일러와 코로케이션 사업자의 비중은 22% 증가. 이는 전체 데이터센터의 3분의1 수준에 해당(현재 전적으로 온사이트로 가동되는 데이터센터는 1%로 미미한 수준)

인튜이티브 서지컬

상장 국가
미국
산업
헬스케어
시가총액(십억달러)
186

최근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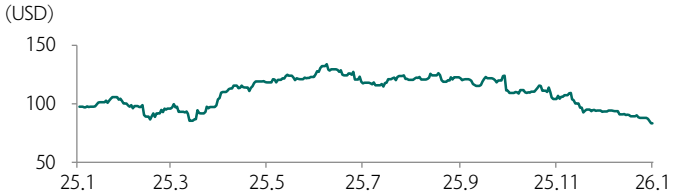
인튜이티브서지컬(ISRG.US): FY25Q4 리뷰

- 4분기 주요 실적지표가 기대치 상회. 2026년 수술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으나 ISRG가 지난 몇 년간 첫 연간지표 발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연간 지표는 첫 가이던스 대비 크게 아웃퍼폼 한 것을 고려하면 기존 패턴을 따른 것으로 보임
- 핵심 지표인 다빈치 로봇 수술 건수와 신규 설치 모두 기대치 상회. 수술 성장률 18%로 예상치 17% 상회, 다빈치 수술은 17%.
- 다빈치 시스템 신규 설치는 532대로 컨센 510대 여유 있게 상회, 다빈치5 신규 설치는 303대 설치되며 시장 예상치 271대 상회.
- 연간 기준 총 설치대수는 1,721대 (+13%), 다빈치5는 870대
- 매출액 28.7억 달러(+19% yoy), 시장 전망치 6% 상회, 조정 EPS 2.53 달러로 컨센 12% 상회
- 조정 OPM은 37%로 관세 영향은 약 95bps.
- 2026 수술 성장률 가이던스는 13~15%로 컨센 15% 하회. 향후 분기에 상향조정 될 것으로 보임
- 2026년 조정 GPM 가이던스는 67~68%. 관세영향은 1.2ppt 정도로 예상. 관세 외에 마진에 영향을 줄 요인은 마진이 낮은 신제품의 빠른 성장, 최근 시설 확장에 따른 감가상각 증가, 다빈치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중 증가 등
- 2026년 심장병 수술이 다빈치5를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서 성장 잠재력 높음. 2025년 전 세계적으로 Si 및 Xi 시스템에서 약 1.7만 건의 Cardiac 수술이 수행됨. 다빈치5가 승인된 지역(미국, 한국 등) 기준으로 로봇 수술 적합성을 분석했을 때, 잠재적 기회는 연간 약 16만 건 규모로 보고 있음
- ASC(외래 수술 센터) 확장 전략은 낮은 중증도의 대량 수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형 병원 입장에서의 경제적 요인에 부합하기 때문에 긍정적 영향 클 것

넷플릭스

상장 국가
미국
산업
IT/플랫폼
시가총액(십억달러)
382

최근 주가 추이



넷플릭스(NFLX.US): FY26Q1 리뷰

- 4Q25 매출액 121억 달러(+18%)은 시장 예상치 부합. 영업이익 30억 달러(+30%), EPS 0.56달러(+30%)로 시장 예상치 29억 달러, 0.55 달러를 상회. 가입자는 3.2억 명을 돌파
- 지역별로도 UCAN 18%, EMEA 15%, LATAM 20%, APAC 19%의 고른 성장을 기록
- 2026년 매출 가이던스 507~517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나, 영업이익률(31.5%)이 시장 예상치 33% 하회. 1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22억으로 시장 예상치 부합하나, 영업이익과 EPS는 인수 비용 영향 등으로 39억, 0.76 달러를 제시하며 시장 예상치 42억, 0.81 달러를 하회
- 워너브라더스 인수가 주당 27.75달러 전액 현금 거래로 변경됨에 따라 자사주 매입 일시 중단 및 브릿지론 기존 320억에서 422억 달러로 증액 등 재무 부담이 부각
- 워너브라더스 인수에 따른 이익 훼손과 자사주 매입 중단, 재무 부담 가중에 대해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하락세
- 그럼에도 본업은 견고함. 시청 시간은 2025 년 하반기 기준 전년 대비 2% 증가했으며, 브랜드 오리지널 콘텐츠 시청 시간은 9% 증가. 광고 매출도 2025년 2.5배 이상 성장하며 15억 달러를 돌파. 2026년에는 2배 이상 성장을 목표. 핵심 체력이 강력하여 인수 불확실성 해소 시 주가 회복이 기대됨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젠슨 황, 로보틱스 기반의 유럽 산업 부흥과 AI의 생산성 도구로서의 가치 강조

- 젠슨황 CEO는 다보스 포럼에 참여하여, 유럽이 보유한 강력한 제조 및 산업적 뿌리가 로보틱스 기술과 결합할 때 거대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인공지능이 유럽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핵심 동력임을 시사
- 인공지능이 대규모 실직을 초래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인간의 능력을 증강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매김하여 새로운 직무와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

마이크로소프트(MSFT.US): 사티아 나델라, AI 패권의 결정타로 에너지 인프라와 토큰 최적화 역량 지목

- 나델라 CEO는 AI 경쟁의 핵심 변수를 토큰(token) 비용으로 정의하며, 토큰의 원가를 좌우하는 전력, 데이터센터 용량, 실리콘(반도체) 같은 공급 측 제약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가를 것이라고 강조
- 특히 "어떤 지역의 GDP 성장은 AI를 쓰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과 직접 연동된다"며, 값싸고 신뢰도 높은 전력을 확보한 국가가 더 큰 모델과 더 많은 워크로드를 더 낮은 비용으로 돌리며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을 시사
- 동시에 AI가 사회적으로 '에너지를 써도 되는 정당성(사회적 허가)'을 유지하려면 의료·교육·공공 효율·민간 경쟁력 등 실물 성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야 하며, 혜택이 빅테크·부유국에만 집중되면 거품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

알파벳(GOOGL.US): 데미스 허사비스, '미중 AI 기술 격차 6개월'

-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하사비스는 다보스 인터뷰에서 중국 AI 기업들이 프런티어 모델을 빠르게 추격하는 역량은 커지고 있지만, 아직 프런티어를 넘어서는 혁신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전반적으로 서방의 프런티어 연구소 대비 약 6개월 정도 뒤처져 있다고 평가

- 유튜브 CEO 닐 모한의 2026년 로드맵은 AI를 '창작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표현과 제작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전면 배치하되, 부작용(저품질 대량 생성물인 AI 슬롭과 딥페이크 확산)을 플랫폼 레벨에서 통제하겠다는 투 트랙을 제시
- 구체적으로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얼굴·목소리 등 '자기 닮은꼴(라이트니스)'을 활용해 쇼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예고했고, 텍스트 프롬프트 기반 게임 제작, 음악 실험 등 생성형 도구를 추가하겠다고 밝힘
- 동시에 '무엇이 실제이고 AI 생성물인지 구분이 더 어려워지는 환경'을 전제하고, 스팸과 반복되는 저품질 콘텐츠를 줄여온 기존 품질 관리 체계를 AI 콘텐츠에도 확장하며, 크리에이터의 라이트니스가 무단 활용되는 사례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장치와 딥페이크 대응을 2026년 핵심 과제로 제시

메타(META.US): 스레드, 모바일 DAU에서 X를 추월하며 광고 플랫폼으로 전환 가속

- 시밀러웹 기준으로 스레드는 2026년 1월 7일 기준 iOS·안드로이드 일간 활성 이용자(DAU) 1억4,150만 명으로 X(1억2,500만 명)를 앞섬. 다만 웹에서는 스레드 약 850만, X 약 1억4,540만으로 차이가 여전함
- 모바일 이용 지표의 질적 개선을 바탕으로 메타는 스레드 광고를 전 세계로 확대할 예정. 다음 주부터 단계적 적용 예정이며 완전 적용까지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5년 11월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메타의 개인 소셜 네트워킹 시장 독점 및 반경쟁적 인수(인스타그램 2012년, 왓츠앱 2014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에 착수. 1심은 틱톡·유튜브 등과의 경쟁을 근거로 FTC의 독점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반면, FTC는 메타의 경쟁 시장에 틱톡·유튜브를 포함시키지 않고, 지인·친구 기반으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개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는 별도 시장이 존재한다고 전제하며 메타의 독점을 주장

오픈AI(비상장): 자금 조달과 인프라 확장 및 수익화 지속

- 샘 올트먼 CEO는 중동의 주요 국부펀드·대형 투자자들을 만나 오픈AI의 신규 투자 라운드 자금 유치를 타진하고 있으며, 라운드 규모는 최소 500억달러 이상, 기업가치는 약 7500억~8300억달러 수준 예상
- 세레브라스(Cerebras)로부터 최대 750MW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다년 간의 계약을 체결. 거래 규모는 10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
- 미국 내 ChatGPT에서 광고를 시험 도입해 구독 기반에 더해 광고라는 신규 현금흐름을 추가하려는 방향을 공식화. 광고는 대화 맥락에 맞는 제품/서비스가 응답 영역 하단(또는 응답 주변)에 표시될 것으로 예상. 성인 대상의 무료 이용자 및 신규 저가 요금제(Go)에서 우선 노출되며, Plus·Pro·Enterprise 등 상위 구독은 무광고를 유지하는 구조. 오픈AI는 광고가 답변 내용을 좌우하지 않으며, 대화 데이터를 광고주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앤스로픽(비상장): 자금 조달 순조로우나, 25년 GPM은 기존 전망치 대비 하락

- 세쿼이아 캐피털은 앤스로픽의 신규 자금조달 라운드에 참여할 계획이며, 이 라운드는 최소 250억달러 이상을 목표로 하고 기업가치는 3,500억달러 수준으로 예상. 세쿼이아는 기존에 OpenAI·xAI 등 경쟁 구도에 있는 AI 기업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앤스로픽까지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
- 앤스로픽은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2025년 GPM 전망치를 40% 수준으로 낮췄는데, 핵심 원인은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돌릴 때 발생하는 추론 비용이 예상보다 높아졌기 때문

우주/로봇

테슬라(TSLA.US): Dojo3를 '우주 기반 AI 컴퓨팅'으로 재가동

- 일론 머스크 CEO는 테슬라가 한때 중단했던 3세대 AI 슈퍼컴퓨터/칩 프로젝트인 Dojo3 개발을 다시 추진하되, 지상(자율주행 학습) 중심이 아니라 우주 기반 AI 컴퓨팅 용도로 포지셔닝한다고 밝힘
- 동시에 AI5 칩 설계가 "상당히 좋은 상태"에 들어왔고(제조는 TSMC), AI6는 삼성과의 대형 계약을 통해 차량·옵티머스 및 데이터센터 학습용까지 커버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AI7/Dojo3는 더 장기적이고 고위험(문샷)인 영역으로 확장하는 그림을 암시

블루오리진(비상장): '테라웨이브'로 위성 인터넷 경쟁에 참전

- 블루오리진은 데이터센터·정부·기업 고객을 겨냥한 위성통신 서비스 '테라웨이브(TeraWave)'를 공개하며, 2027년 4분기부터 위성 배치를 시작해 5,408기 규모의 다중 궤도(LEO·MEO)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128기 중궤도(MEO) 위성의 광 링크로 최대 6Tbps급 전송을, 5,280기 저궤도(LEO) 위성은 고객당 최대 144Gbps급 속도를 제시. 개인 소비자용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목적에 최적화된 전용 서비스로 포지셔닝해 스타링크의 대중형 모델과 차별화

로켓랩(RKLB.US): 뉴트론 1단 탱크 시험 과정 중 파열 발생

- 뉴트론(Neutron) 로켓 개발 과정에서 1단 탱크의 자격 시험(수압·내압을 거는 hydrostatic pressure trial) 도중 파열(rupture)이 발생했다고 공지. 로켓랩은 자격 시험 단계에서 구조물을 의도적으로 한계까지 가압해 안전 여유(margin)를 검증하는 과정이므로 이런 실패는 드물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시험 구조물이나 시설에 중대한 손상은 없었다고 밝힘
- 또한 차기 1단 탱크는 이미 생산 중이라 개발은 중단 없이 계속되고, 현재는 시험 데이터(파열 원인·설계/제조 보정 필요 여부)를 리뷰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뉴트론 발사 일정에 미치는 영향 범위를 판단하겠다고 함. 25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뉴트론 스케줄을 업데이트 할 예정

전력기기/에너지

블룸에너지 [2026 Data Center Power Report]

블룸에너지는 [2026 Data Center Power Report] 발간, 주요 내용 요약

- 유틸리티 응답자들은 현재 전력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하이퍼스케일러와 코로케이션 사업자들의 예상 대비 1.5~2년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대답
- 지난 6개월동안 2030년까지 전적으로 온사이트 전원으로 구동되는 캠퍼스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는 하이퍼스케일러와 코로케이션 사업자의 비중은 22% 증가. 이는 전체 데이터센터의 3분의1 수준에 해당(현재 전적으로 온사이트로 가동되는 데이터센터는 1%로 미미한 수준)
- 영구적인 온사이트 발전이 장기적으로 선호되는 전력 공급 방식이 될 것
- 데이터센터 크기는 현재 50-200MW 크기가 27%로 비중 가장 높으며 GW 단위는 10% 수준(2GW 초과는 2%)

  2030년이 되면 200-500MW 크기가 28%로 가장 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GW 단위는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35년에는 GW 단위 데이터센터 비중이 3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온사이트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데이터센터 디벨로퍼 비중은 73%.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디벨로퍼들의 온사이트 내 선호도는 연료전지(47%), 엔진(38%), 터빈(333%) 순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01월 2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2026년 01월 2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